

# 신지애 “골프 여제 경쟁 홈에서 끝낸다”

신인·상금왕·다승 부문 등 선두…오초아·커 강력 도전

코오롱 챔피언십 30일 개막…서희경 등 깜짝 활약 기대

한국여자골프의 지존 신지애(21·미래  
에셋)가 여제 등극의 분수령에서 행진한  
리이벌들과 훈코스에서 맞붙는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정규멤버로서 첫해를 보내고 있는 신지애는 이미 신인왕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의 선수, 상금왕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최저타수 부문에서도 신지애는 간발의 차로 4위(70.36타)에 올라있어 남은 LPGA 투어 4개 대회의 결과에 따라 충분히 역전도 가능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30일부터 사흘간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오션코스(파72·6천490야드)에서 열리는 하나은행-코오롱챔피언십이 총상금 170만달러(우승상금 25만5천달러)로 일본에서 열리는 미즈노 클래식(총상금 140만달러), 멕시코 대회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총상금 110만달러), 미국에서 열리는 마지막 대회 LPGA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150만달러)보다 상금이 많다.

더욱이 훈코스에서 열리는 만큼 신지애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컵을 가져와 각종 타이틀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

남은 4개 대회 중 한국에서 열리는 하나은행-코오롱 챔피언십이 총상금 170만달러(우승상금 25만5천달러)로 일본에서 열리는 미즈노 클래식(총상금 140만달러), 멕시코 대회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총상금 110만달러), 미국에서 열리는 마지막 대회 LPGA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150만달러)보다 상금이 많다.

더욱이 훈코스에서 열리는 만큼 신지애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컵을 가져와 각종 타이틀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

시즌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신지애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역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다). 오초아는 시즌 전반기 예상과 함께 2승을 거둔 뒤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이달 초 열린 나비스타 LPGA 클래식에서 우승하며 타이틀 경쟁에 다시

뛰어 들었다.

다승 부문에서 신지애와 공동 선두(3승)에 오른 오초아는 올해의 선수 포인트에서 131점을 쌓아 신지애(136점)를 바짝 뒤쫓고 있다.

또한 최저타수 부문에서 1위(70.16타)를 차지하고 있는 오초아는 상금랭킹에서는 5위로 밀려 있지만 우승 한두번에 순위는 뒤바뀔 수 있다.

상금랭킹 3위, 최저타수 부문 2위에 올라 있는 크리스티 커(미국)도 만만치 않은 상대다.

일본의 슈퍼스타 미야자토 아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대지만 일본 투어 시드를 유지하기 위해 이번 대회에 불참하기 때문에 다소 불리한 상황이다.

미야자토는 11월6일 안방에서 개막하는 미즈노 클래식에서 반전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대회마다 “우승을 마음 먹은대로 할 수 있으나요. 하늘이 도와줘야죠”하며 낙천적인 모습을 보였던 신지애는 오초아의 3승 소식을 들은 뒤 “한국에서 우승컵을 내줄 수는 없죠”라며 각오를 다졌다.

27일 연습 라운드를 마친 신지애는 “코스 상태가 좋은데 날씨가 어떨지 변수”라며 “약간 피로가 있는 편인데 빨리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LPGA 투어 멤버인 최나연(22·SK텔레콤), 지은희(23·홀리코리아)는 물론 국내 1인자 서희경(23·하이트)을 비롯해 유소연(19·하이마트), 안선주(22·하이마트) 등도 세계정상급의 플레이를 펼쳐 보일 전망이다.

/연합뉴스



신지애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LPGA 하나은행-코오롱챔피언십에 참가해 오초아와 함께 ‘골프여제’의 자리를 놓고 샷 대결을 펼친다.

## 한국 3골 폭발 우루파이 꺾고 첫 승

### U-17 청소년 월드컵 축구

한국 청소년 축구의 선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17세 이하(U-17)

축구대표팀이 남미의 복병 우루파이를 꺾고 2009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에서 첫 승을 끌려 1987년 캐나다 대회 이후 22년 만의 8강 진출을 위해 힘차게 출발했다.

한국은 27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나이지리아 카두나 스타디움에서 열린 우루파이와 F조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남승우(부경고)와 손흥민(동북고), 이종호(광양체육고)의 릴레이 골을 앞세워 후반 갈고레스가 한 골을 만회한 우루파이를 3-1로 완파했다.

이달 초 막을 내린 U-20 월드컵에서 8강에 오른 선배들의 영광을 이으려는 후배들의 의욕이 빛난 경기였다.

한국은 29일에는 유럽의 강호 이탈리아와 예선 두 번째 경기를 갖는다.

이탈리아도 후반 33분에 터진 페데리코 카리오의 결승골에 힘입어 ‘악체’ 알제리를 1-0으로 꺾고 첫 승리를 신고했다.

하지만 한국이 꿀득실에서 이탈리아(한국+2, 이탈리아+1)를 앞서 조 선두로 나섰다. 또 E조의 아랍에미리트(UAE)와 스페인도 1차전 상대인 말리와 미국을 2-0과 2-1로 각각 누르고 승점 3점을 챙겼다.

이번 대회에는 전체 24개 팀이 네 팀씩 6개조로 나뉘 각 조 1, 2위와 3위 네 팀이 16강에 오른다.

/연합뉴스

## “내년에 순천에서 다시 만나요”

### 전남도 생활체육대회 성료

‘내년에 순천에서 다시 만나요’

전남생활체육인들의 화합축제로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해남에서 열렸던 제21회 도민생활체육대회가 27일 우승경기장에서 가진 폐회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6개 종목에 걸쳐 각 시·군 동호인들의 기량을 겨룬 이번 대회에서 순천시가 개인별·집·점구·축구에서 우승했고, 여수시는 배구·베드민턴·씨름·탁구·테니스에서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또 해남군은 볼링과 합기도, 구례군은 생활체조와 태권도, 화순군이 궁도, 목포시가 단축마라톤, 고흥군이 줄다리기, 영광군이

쌀가마·지고달리기, 나주시가 새끼꼬기에서 정상을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 완도·진도·영암이 각각 입장상 1·2·3위에 뽑혔으며 장려상은 해남과 함평, 신안이 차지했다.

또 화합상은 곡성이 수상했으며, 질서상은 장흥, 감투상은 구례, 응원상은 강진에 돌아갔다. 모범적인 경기운영을 한 전남배구연합회는 우수연합회상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타우 전남생활체육회장은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와준 해남군 생활체육 관계자와 지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한다.”며 “대회를 통해 결집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역량은 지역 발전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 고 말했다.

/서승원기자 swseo@

## 전이경, 밴쿠버 동계오륜 성화봉송 주자 선정



동계올림픽에서 통산 4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 었던 ‘쇼트트랙 여왕’ 전  
이경(33)이 한국을 대표해 2010 밴쿠버 동계  
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선정됐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D-100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칠 줄 모르는 도전 정신과 끊임없는 열정으로 올림픽 정신을 구현한 한국의 대표적인 빙상 선수라는 점을 높이 평가해 전이경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올해의 선수 되기 위해 왔다”

오초아 “한국 5번째 방문…날씨 좋아 컨디션 최상”



오초아는 30일 연습 라운드에 앞서 기자와 만나 “이번 대회 목표는 우승”이라고 밝혔다.

“이번이 5번째 한국 방문”이라는 오초아는 드러냈다.

30일부터 사흘간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오션코스(파72·6천490야드)에서 열리는 LPGA 투어 하나은행-코오롱챔피언십에 우승컵을 가져와 각종 타이틀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

시즌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신지애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역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다). 오초아는 시즌 전반기 예상과 함께 2승을 거둔 뒤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이달 초 열린 나비스타 LPGA 클래식에서 우승하며 타이틀 경쟁에 다시

/연합뉴스

이는 “한국에 다시 와 행복하다. 컨디션도 좋고 날씨도 마음에 든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올해 4개 대회를 남긴 가운데 신지애가 상금과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고 오초아는 최저타수 선두를 차고 있다. 오초아는 ‘올해의 선수나 최저타수 부문 경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바로 내가 여기에 온 이유”라며 “신지애가 좋은 선수임에 틀림없지만 내가 올해의 선수, 최저타수 부문 1위를 차지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주한개나대사관은 27일 “전이경이 개념과 관광과 밴쿠버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선정한 세계 각국 14명의 성화봉송 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됐다”

라며 “11월 1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토피노에서 성화를 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드 립만 주한 캐나다 대사는 이날 오전 종주 정동 주한캐나다대사관에서 열린 ‘2010

28일(수)  
▲여자 프로농구 <신세계> 우리은행>  
(16:50·SBS스포츠)  
▲프로농구 <오리온> 모비스>(19:00·MBCESPN)

동계올림픽에서 통산 4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 었던 ‘쇼트트랙 여왕’ 전  
이경(33)이 한국을 대표해 2010 밴쿠버 동계  
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선정됐다.

동계올림픽 D-100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칠 줄 모르는 도전 정신과 끊임없는 열정으로 올림픽 정신을 구현한 한국의 대표적인 빙상 선수라는 점을 높이 평가해 전이경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골프 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신지애(21·미래에셋)과 벌이고 있는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올해의 선수, 최저타수 부문 경쟁에 대해 강한 승부욕을

드러냈다.

30일부터 사흘간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오션코스(파72·6천490야드)에서 열리는 LPGA 투어 하나은행-코오롱챔피언십에 우승컵을 가져와 각종 타이틀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

“이번이 5번째 한국 방문”이라는 오초아는 드러냈다.

30일부터 사흘간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오션코스(파72·6천490야드)에서 열리는 LPGA 투어 하나은행-코오롱챔피언십에 우승컵을 가져와 각종 타이틀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

시즌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신지애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역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다). 오초아는 시즌 전반기 예상과 함께 2승을 거둔 뒤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이달 초 열린 나비스타 LPGA 클래식에서 우승하며 타이틀 경쟁에 다시

/연합뉴스

이는 “한국에 다시 와 행복하다. 컨디션도 좋고 날씨도 마음에 든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올해 4개 대회를 남긴 가운데 신지애가 상금과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고 오초아는 최저타수 선두를 차고 있다. 오초아는 ‘올해의 선수나 최저타수 부문 경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바로 내가 여기에 온 이유”라며 “신지애가 좋은 선수임에 틀림없지만 내가 올해의 선수, 최저타수 부문 1위를 차지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주한개나대사관은 27일 “전이경이 개념과 관광과 밴쿠버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선정한 세계 각국 14명의 성화봉송 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됐다”

라며 “11월 1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토피노에서 성화를 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드 립만 주한 캐나다 대사는 이날 오전 종주 정동 주한캐나다대사관에서 열린 ‘2010

동계올림픽에서 통산 4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 었던 ‘쇼트트랙 여왕’ 전  
이경(33)이 한국을 대표해 2010 밴쿠버 동계  
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선정됐다.

동계올림픽 D-100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칠 줄 모르는 도전 정신과 끊임없는 열정으로 올림픽 정신을 구현한 한국의 대표적인 빙상 선수라는 점을 높이 평가해 전이경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골프 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신지애(21·미래에셋)과 벌이고 있는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올해의 선수, 최저타수 부문 경쟁에 대해 강한 승부욕을

드러냈다.

30일부터 사흘간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오션코스(파72·6천490야드)에서 열리는 LPGA 투어 하나은행-코오롱챔피언십에 우승컵을 가져와 각종 타이틀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

“이번이 5번째 한국 방문”이라는 오초아는 드러냈다.

30일부터 사흘간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오션코스(파72·6천490야드)에서 열리는 LPGA 투어 하나은행-코오롱챔피언십에 우승컵을 가져와 각종 타이틀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

시즌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신지애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역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다). 오초아는 시즌 전반기 예상과 함께 2승을 거둔 뒤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이달 초 열린 나비스타 LPGA 클래식에서 우승하며 타이틀 경쟁에 다시

/연합뉴스